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 北韓 共產主義의 理論的 特性

研究執筆責任 劉 英 俊

(略歷) 서울大 法大 卒業 (1962)

하와이大 政治學碩士 (1970)

하와이大 政治學博士 (1974)

하와이大 講 師 (1972)

明知大 教 授 (1974)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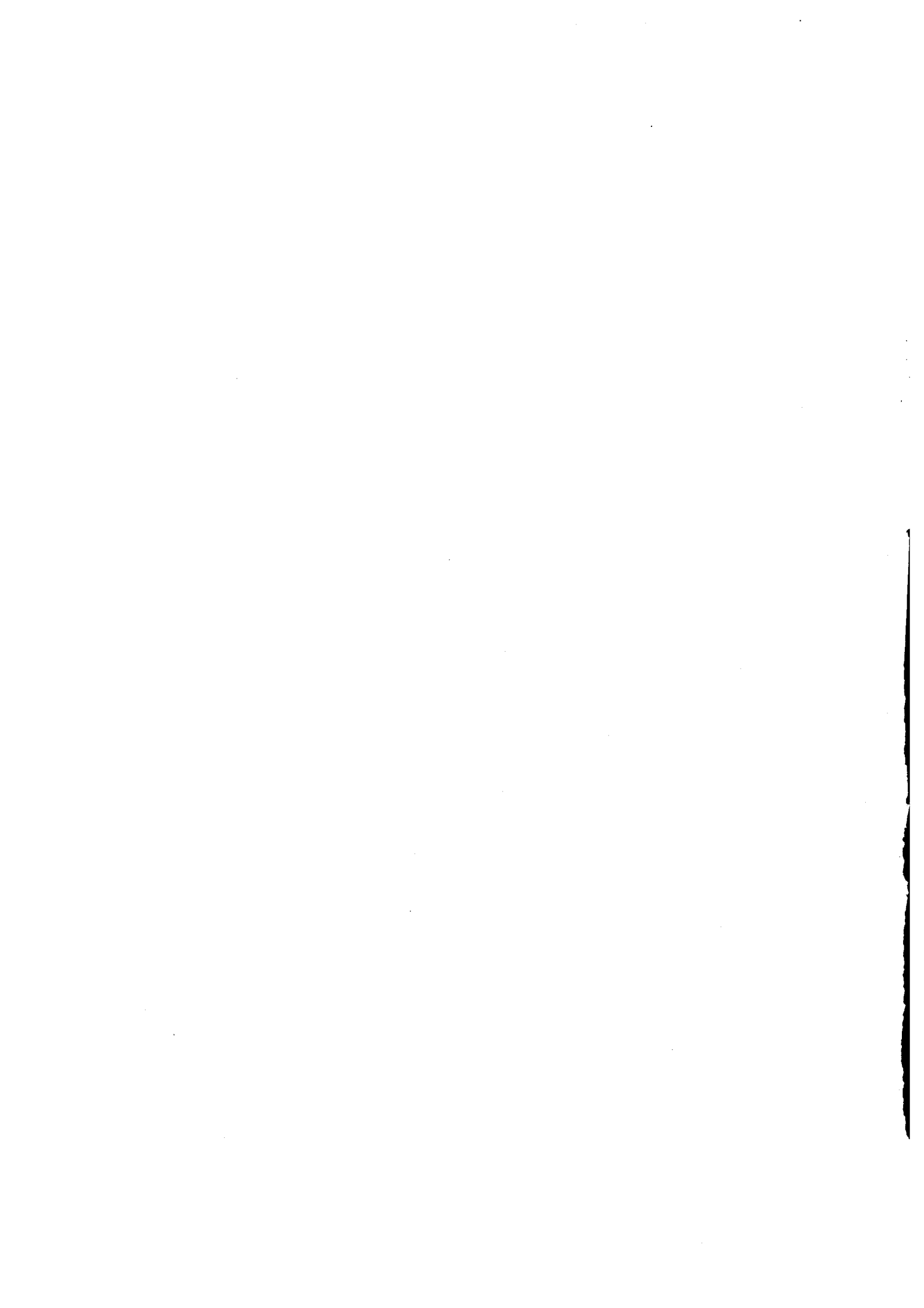
刊 行 責 任 朴 雄 熙 (調查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目 次

I. 序 論 .....	3
1. 問題의 提起 .....	3
2. 研究의 範圍 .....	4
3. 研究方法과 그 限界 .....	5
II. 共產主義理論의 前提로서의 體制的 特性과 權威構造의 變化過程 .....	6
1. 體制的 特性 .....	6
2. 權威의 變化過程 .....	11
가. 革命期와 카리스마( Charisma ) .....	12
나. 體制形成期와 權威의 原始的 蓄積 .....	15
다. 體制維持期와 民主的 中央統制 .....	20
III. 北韓共產主義의 理論的 特性 .....	26
1. 北韓의 體制的 特性: (북조선로동당의 創立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設立) .....	26
2. 權威의 變化過程과 理論의 修正過程 .....	29
가. 革命期와 막스·레닌主義 .....	29
나. 體制形成 再編과 主體思想 .....	37
다. 體制維持와 金日成唯一思想 .....	45
IV. 結 論 .....	51



# I. 序 論

## 1. 問題의 提起

우리 大韓民國과 體制對決을 하고 있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은 거의 언제나 大韓民國의 國際적으로 認定된 正統性을 否認하고, 오히려 우리 歷史, 傳統, 文化에는 전혀 생소한 異質的인 思想인 共產主義 理論을 펴면서 그것이 마치 正統性이 있는 우리 民族의 體制나 權威가 되는 양 宣傳하고 있다. 그런데 그네들이 主張하는 體制나 權威에 關한 理論은 共產主義國家들의 一般理論과는 크게 다르고 또 그 起伏이 심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뜻에서 여러사람들이 그렇게 일컬듯이 北韓共產主義는 그 理論的 特性으로 보아 과연 諸共產國家群속의 突然變異的 存在인 것인가? 맑스-레닌主義 政治이데올로기를 正統의 神柱 모시듯 하더니 어느 틈에 主體思想이니 唯一思想으로 變化되고 결국 金日成主義로 까지 탈바꿈하고 말았다.

그러나 突然變異가 그 심각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自體에 對한 解明만으로는 窮極的인 解答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또한 否認할 수 없는 方法論上의 엄연한 귀결점이다. 즉, 돌연변이에 對한 明確한 解部는 역시 一般法則 및 蓋然性에 對한 선명한 分析과 認識을 하고서야 처리되는 것이다.<sup>1)</sup>

---

註 1) Taro Yamane, Statistics: An Introductory Analysis (New York: Harper & Row, 1967), pp. 313-90.

이런 뜻에서 종래의 우리들 常識人의 北韓共產集團에 대한 理解가 왕왕히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임기응변式이었음은 솔직히 指摘되어야 할 것이다.<sup>2)</sup> 北韓共產主義가 제아무리 과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全體共產國家의 政治體制 및 權威構造의 特性이라는 脈絡에서 찾아질 때 우리로서는 그 突然變異性에 대한 認識이 더욱 뚜렷해지고 이에 따라 그 理論的 特性에 對한 우리의 對應姿勢도 더욱 굳건하고 效率的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할 것이다.

## 2. 研究의 範圍

이러한 問題意識에서 研究者는 本 小考를 通하여 첫째, 共產主義 一般의 理論의 前提가 되는 政治體制와 權威構造의 一般의인 特性이 무엇이며, 둘째, 이러한 一般理論을 北韓共產主義에 打射하면 어떠한 特徵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보고저 한다. 즉, 다시 말하여 本 研究의 範圍는 共產主義에 對한 一般的 認識을 爲하여 共產國家群의 體制的 特性과 權威構造를 먼저 보고, 그다음 北韓의 그것들을 이와 비교하는 觀點에서 보아서 그 類似點

---

註2) 1972年 7·4 「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北韓學이 일종의 tabu (taboo) 였던 것이 사실이고, 남북대화이후 갑자기 北韓을 分析코저하다보니 共產體系에 對한 全面的 體系的 分析에 앞서, 北韓만을 성급히 다루는 경향이 學界의 傾向이었다. 「北韓」誌 創刊號 參考.

과 差異點을 캐어보는 순서와 範圍가 된다는 말이다.

### 3. 研究方法과 그 限界

여기서 指摘해 두고져 하는 것은 共產主義에 關한 研究는 筆者의 立場에서는 그것이 共產主義體制的 特性이든 權威構造이든 간에 불가불 歷史的 接近法( historical approach )일 수밖에 없다는 點이다. 이것은, 첫째 現存하는 모든 共產體制가 비교적 덜지 않은 革命의 結果로 생겨났다는 事實과, 둘째 그들의 革命的인 特性에도 不拘하고 共產體制도 經濟的 文化的 및 政治的 發展이라는 과정에 그들의 努力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共產體制속에서 變化가 恒存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理論的 特性도 그러한 變化라는 맥락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임은 再論을 要치 않는다. 다만 共產國家의 體制나 權威構造 研究에 있어서 지적되어야 할 또 하나의 注意點을 엄격한 뜻에서 이것들에 對한 行態論的 接近( behavioral approach )이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面으로 資料가 制限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現 段階에서는 研究自體가 印象主義的( impressionism )이거나 直能主義的( intuitivism )으로 될 수 밖에 없는 限界點이 있는 것이다.

## II. 共產主義理論의 前提로서의 体制的 特性和 權威構造의 變化過程

### 1. 體制的 特性

러시아革命以來, 特히 1945年 以後에 있어서 共產主義體制는 自由民主主義에 對한 하나의 主된 理念的 挑戰을 이루어 왔다.

近來에 와서 이러한 도전은 이른바 第三世界에 對하여 더욱 그 열을 올리고 있다. 約 15개국에 달하는 이들 共產國家들은 人口가 가장 많은 中共과 소련을 頂點으로 하여 제각기 共產主義 社會建設에 努力해 왔으며 30여년 동안 제나름대로 하나의 活力을 띤 政治秩序를 確立하는데 제나름들대로 成功한 셈이다.

그런데 1960年代에 와서 이들 共產國家들의 政治體制의 特性으로 나타난 하나의 증세는 다름아닌 共產黨이라는 경직된 認識에 기초를 둔 急進的 權威政體가 그들의 全盛期를 지나쳐 버린 것이다. 즉, 外的으로 共產主義의 限定된 팽창은 확실히 그들의 支持者를 失望시킨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1940年代 後半에 共產主義가 移植된 東歐나 東北亞地域밖에서는 단지 쿠바 (Cuba)만이 이 그룹에 가담했을 뿐<sup>3)</sup>, 이따금 그럴 기미를 드러내던 아프리카 中東國家들도 실제로 그들에 가담하지는 않은

---

註3) 여기서는 1975년에 共產化된 베트남 캄보디아는 제외됨.



셈이다.

內面的인 面에서 보면 共產國家들은 內紛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비단 中·蘇의 理念紛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고슬로비아를 필두로 하여 東歐 여러나라나 또 다른 곳에 있어서의 보다 더 自由主義的 政策, 보다 더 큰 參與, 그리고 보다 덜한 官僚主義<sup>4)</sup> 등을 요구하는 데서도 이러한 內紛의 조짐을 쉽게 알 수 있다.

많은 경우 소비에트의 帝國主義에 對한 혐오감이 이러한 不滿의 表面上의 이유지만, 아마도 그 보다는 共產體制와 함께 오리 라던 「正義와 幸福의 時期」가 실제로 實現되지 못한데서 더욱 큰 이유가 있는 것 같다.<sup>5)</sup>

共產主義體制는 政策目標에서 急進的( radical )인 것이 그 特徵의 하나이다. 실제로 그런 政策目標는 집행되기도 하지만 그에의 參與는 높지 못하고 그러한 體制에 수반되는 權威主義的 政策執行方式은 많은 경우 거부返應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따라서 共產體制란 外的 內的으로 낮은 正統性水準( The level of legitimacy )밖에 갖지 못하게 되며 이는 또한 집권자로 하여금 自己保存을 爲하여 한층 더한 權威主義的 措置를 취하게

---

註 4) Jean Blondel, Comparing Political System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p. 187.

註 5) Ibid.

하는 악순환을 빚게 한다.<sup>6)</sup> 그러기 때문에 共產體制란 制限된 범 위 내에서 異論의 여지가 없는 成就性에도 不拘하고 長期的으로 보아 未來의 明白한 發展에 暗影을 던져주게 마련인 政治體制라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共產主義體制를 全面的으로 維持해 가고 그것을 細部的으로 이끌어가는데 가장 책임있는 關鍵的 構造는 單一政黨이다. 즉 공산국의 構造的 特性에 관한 限 그것은 黨과 國家와의 엄연한 구별인 바, 黨을 迫車로 하고 國家는 黨에 依하여 올바른 方向으로 움직여 나가게 되는 셈이다. 국가의 모든 現職은 黨에 依하여 장악되며, 社會의 모든 領域이 적어도 理論적으로는 黨에 依하여 侵透되어져 있다. 黨은 反對勢力을 누르는 도구이며, 政治적으로 無關心할지도 모르는 人民大衆의 諸 階層을 動員하는 하나의 責( agent )으로 역할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共產政治體制의 主된 發明이 있다면 그것은 黨인 것이다.<sup>7)</sup>

共產主義政黨은 프로레타리아의 선구자로 胚胎되었었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한 人民代表로만 생각된 것이 아니라, 그 自體가 하나의 엘리트로 간주된 셈이다. 이러한 點이야말로 共產主義政黨에게 특별한 地位가 주어지고 그러한 지위가 憲法上으로도 인정

---

註 6) 1956 年の 소련에 의한 헝가리 간섭사건, 1968 年の 체코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註 7) Jean Blondel, op., cit., p. 191.

되는 所以 이다. 勿論 共產主義體制內에서도 여타의 政黨들이 있을 수는 있다. 基督教的 또는 農業的 性格을 띠는 政黨이 그러한 例겠지만 그런 政黨들은 共產政党的 窮極的인 장악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奉仕하는 範圍 내에서만 存立可能한 것이 特徵이다.<sup>8)</sup>

共產主義政党的 主要한 機能別 特性을 要約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共產主義政党的은 社會 各 階層에 하나의 迫車로 과고들어 그 階層 構成員의 生活을 啓導하는 役割을 한다.

여기에서 共產主義 政党的은 하나의 組織網 또는 特殊組織의 性格을 띠우는 것으로, 黨은 男女 누구나가 共產主義社會의 目標에 적어도 外形的으로는 社會화된 印象을 주게 強要하는 性格이 있다.

둘째로, 이러한 共產主義政党的의 教育的 엘리트形成機能은 그 體制 속에 들어가는 投入 (input) 選擇에 상당한 役割을 하는 것으로도 설명된다. 즉, 共產主義政党的은 소위 「民主的 中央集權主義 (democratic Centralism)」의 原理위에 운영되고 …… 적어도 表面的으로는 …… 여러 아이디어들이 처음에는 밑바닥층에서 論議되고 그다음 代表機關<sup>9)</sup>에 의하여 承認되는 形式을 취한다.

---

註 8) Ibid.

註 9) 이는 全党大會 (the party congress) 를 의미하며 보통 매 4年만에 한번씩 소집되는 것이 각 共產國의 通例.

일단 党에 의하여 승인되고 나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지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애초에 그 아이디어에 對하여 어떤 見解가 있었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共產主義政党的 存在自體가 底辺層( grassroot )의 意見이나 要求를 바꾸어 버리는 效果를 갖고 있는 것으로, 特히 非黨員의 眞見 等은 널리 퍼지기 以前에 手術을 加하며, 反對勢力의 아이디어는 하나의 政策의 代案으로는 考慮되지 않는다. 勿論 이런 點에 있어서도 時間과 場所에 따른 差異는 있다.

共產主義政党的은 이밖에 두 가지의 다른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그 하나가 党은 政策의 入案者로서 高位政策을 決定하며 그 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여러가지 國家機關의 業務를 調整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一党體制의 두더러진 特性으로서 党은 決定執行을 監視하고 그러한 決定事項이 官僚體制에 依하여 履行되는 方法을 統御한다. 이러한 党的의 役割은 體制가 더 效率的이 되고 더 포괄적이 되며 中央集權化됨에 따라 더욱 그 性格의 농도가 짙어진다. 共產國家에서는 同一政党的이 永久執權을 하며 政治社會를 끌고가는 특별한 任務를 맡는 것이 通例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政策은 國家現職에 依해서 보다 中央委員會, 政治局, 秘書局 등의 党機構에 依하여 決定된다. 党秘書局的의 課들이 行政各部와 同一한 序列에 놓여 있으며 業務面에서는 行政各部를 監視하는 경우가 많다. 法令은 대부분의 경우 議會나 政府에 依하여 通過되기 前에 党中央委員會나 書記局에 依하여 事전에 먼저 토의되고 承諾받게 된다. 따라서 곳에 따라 약간

의 차이는 있으나 國政의 진정한 首班은 內閣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黨의 總秘書라는 主張은 正當한 것이다.<sup>10)</sup>

이상에서 본 것이 共產主義國家가 一般的으로 갖는 體制的 特性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임에 틀림없는 듯하다. 이들은 모두 共產主義理論의 構成要素의 하나로나 그 前提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體制的 特徵이 北韓共產主義體制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는 本稿의 關心事이다. 다만 이들의 全部를 具體적으로 投射함이 옳을 것으로 아나 北韓共產體制라는 素材 自體가 갖고 있는 現저한 制限點이나, 研究 自體가 갖는 限界點으로 보아 可能하고 또 北韓體制에 適實性(relevance)을 갖는 것으로 밀어지는 範圍內에서 주려서 檢討하고자 함은 미리 밝혀 두어야 할 것 같다.

## 2. 權威의 變化過程

權威(authority)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行爲者間에 存在하는 하나의 不平等關係를 뜻한다. 좀더 부연하면 權威란 一方에 의하여 形成된 決定事項들이 他方에 依하여 의문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고 소통되며 지켜지는 때에 이루어지며, 이러한 關係가 관련된 모든 行爲者에 의하여 正統性있는 것으로 自發的

---

註 10) Jean Blondel, op., cit., pp. 192 ~ 193.

으로 받아들여질 때 存在하는 것으로 規定된다.<sup>11)</sup> 權威을 이렇게 規定할 때에 共產體制속의 어떤 特徵을 띠고 나타날 것인가?

共產體制的 權威構造는 몇가지 理由에서 流動的이고 不安全하다고 할 수 있다. 즉 革命歷史의 日淺性, 그들이 내세우는 政治目的上的 지나친 野望, 또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그들이 적용하는 과격한 政治方式 等を 그 理由로 들 수 있다.

이와같은 不安全性으로 因하여 共產엘리트들은 權威問題를 지나치게 認識하게 되고 權威의 形成이나 蓄積을 爲하여 그들의 體制를 지나치게 緊張시키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各 共產體制는 그 나름대로 이러한 權威構造 確保를 爲하여서는 크나큰 代價를 치루어야 했고 아직도 치루고 있는 것이 또한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革命時期的 카리스마(charisma)關係의 造成, 體制形成 및 再遍時期的 權威의 原始的 蓄積(primitive accumulation of authority), 體制維持時期的 民主的 中央集權主義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sup>12)</sup>

#### 가. 革命時期的 카리스마

共產體制 탄생기의 權威에 대한 태도는 複合的이다. 강한

---

註 11) Alfred G. Meyer, "Authority 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in Lewis J. Edinger (ed.) Political Leadership in Industrialized Societie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7), p. 84.

註 12) Ibid., p. 85.

反權威的 態度와 權威主義的 ( authoritarian ) 그것이 同時에 共存하기 때문이다. 集權하는 共産黨은 기왕의 모든 權威에 對하여 反抗的 態도를 나타내며 한꺼번에 모든 政治的 權威를 없애버릴 것만 같은 印象을 왕왕 보여준다. 國家消滅觀이 이러한 욕망을 상징하며 모든 權威를 集産主義의 自然發生的 自治政府로 대체시키고자 기도한다. 이와같은 反權威的 期待는 맑스 및 엥겔스의 著作에서부터 연유되는 것이다.

共産主義이데올로기는 두 가지 점에서 反權威的이다. 즉, 그것은 낡은 權威에 反對하여 모든 權威를 소멸시킬 것을 의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權威主義的이기도 한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黨의 聖典으로 公式化되어 있고 또한 모든 구성원이 그것의 拘束力을 받아들이도록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黨은 따라서 모든 權威의 制度的 化身으로 主唱되고 있다. 黨의 構成員은 文字 그대로 이러한 教理를 마스터하고 있는 者들이다. 그러므로 現職化된 構成員資格 그 自體가 政治的 動力으로서의 窮極的인 權威라는 말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共産黨은 高度로 權威主義的 機構이다. 잡다한 이유로 黨지도자들은 中央集權化 訓練, 지휘原則 等に 對한 必要性을 強調해 왔다.

이러한 연고로 党内權威主義 및 엘리트主義는 共産主義 이데올로기 그 자체에 있어서 불가피적인 核心的 要素가 되어온 셈이다. 즉, 革命的 共産主義는 프로레타리아組織을 確立하기 爲한

目標에서 權威의 必要性을 再闡明하게 된다.<sup>13)</sup>

共産黨들은 그들의 集權初期단계에서는 無政府狀態와 權威사이에서 야기되는 緊張을 緩和시킬 目的으로는 이데올로기 以上の 裝置를 원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 ( mechanism ) 이 바로 카리스마關係의 造成인 것이다. 카리스마는 흔히 靈感있는 指導者가 갖는 特質로 規定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그가 타고난 어떤 世속적 우아함 때문에 지도자로서 성공하게 될 때 그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렇게 定義됨으로써 그 特質은 權威를 爲한 可能한 根據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더 구체적인 定義, 이를테면 영감이라든지 世속적인 우아라든지 하는 特質에 內容을 부여하여 쓰기로 한다. 한 예를 들어 지도자와 추종자가 共히 「正義와 幸福期 ( millenium )」에의 기대에 부풀어 있는 예리한 「無法的 變則狀況 ( anomie )」에 있어서 엘리트의 大衆의 추종에 對한 비위맞춤 等 定義가 이렇게 되면 카리스마는 하나의 特質 ( trait ) 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의 關係로 파악되고, 이런 점은 權威自體가 하나의 關係로 規定된 것과 관련하여 볼 때 환영할 만하다.

왜냐하면 카리스마를 特質로 파악하면 그것은 어느 個人的 또는 獨裁的 리더쉽을 說明함에 그치게 되나 그것을 關係로 파악하면 大衆과 엘리트 또는 大衆과 組職間에 存在하는 것으로 擴大할

---

註 13) Ibid., pp. 86-87.



수 있기 때문이다.<sup>14)</sup> 이런 경우 「共產政權의 成立은 革命期間에는 共産黨과 住民의 相当部分과의 사이에 存在하는 카리스마의 關係를 그 基礎로 한다」는 假說도 可能해진다. (勿論 革命期の 無法的 變則狀況이 카리스마의 關係의 主要한 先行條件이다.)

#### 나. 體制形成期와 權威의 原始的 蓄積

革命으로서 執權한다는 그 自體만으로는 安定된 權威를 確立하기에 充分치 못하다. 왜냐하면 本 考察에서 使用된 뜻에서의 카리스마는 文字 그대로 일시적인 關係이기 때문이다. 元來 카리스마란 극도로 日時的인 種類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權威를 胚胎하지 않는 法이며, 카리스마가 배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權力( power )일 뿐이다. 權力이 權威와 相異한 點은 後者가 正統性에 근거를 두는 關係라면 前者는 強壓과 恐怖에 基礎하고 있는 關係라는 點이다.<sup>15)</sup>

그런데 問題는 적어도 하나의 政治體制를 長期的으로 유지해 나가자면 權威가 필수적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共産 엘리트들도 자기 자신들의 位置를 定하고 나면 카리스마에 根據한 그 어떤 流動的인 權威를 잃고 새로운 權威를 確立 또는 再確立할 必要性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 段階의 共産主義指導者들은 權威確立의 必要性을 가장 절박

---

註 14) Ibid., p. 88.

註 15) Robert A. Lahl, Modern Political Analysi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3), pp. 50 ~ 51.

한 것으로 보는 것이니, 그것은 革命的 카리스마는 모두 사라지고 공산주의 엘리트와 그들을 따르는 以前의 人民大衆이 共히 相互에 結있었던 情熱이 환상과 의심, 그리고 증오로 變해 버릴 지도 모를 일종의 後遺症에 민감해 지기 때문이다. 이런 點은 카리스마의 範圍가 크면 클수록 失望의 크기도 正比例할 可能性이 짙다.<sup>16)</sup>

요컨대 이 段階에 있어서는 權威 상실의 極적으로 되고 이미 심각해진 危機는 共產主義政權이 항상 신경을 쓰는 外的인 壓迫에 依하여 더욱 첨예化된다. 結果적으로 權威再確立의 課業은 共產主義 리더십이 最優先적으로 解決하고 넘어가야 할 問題로 重 壓感을 더 한다. 사실 共產主義體制를 初期發展段階에서 特徵지어 주는 過程中的 하나가 體制形成期の 이른바 「權威의 原始的 蓄積」인 것이다.

이는 여러 革命政權에 依하여 열성적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權力을 가능한 限 신속히 權威로 轉換시켜, 보고자 하는 努力을 意味한다. 이는 또한 壓度的으로 不利한 與件들에 對抗하여 展開하는 일대 短期生産計劃을 實踐하는 스타일로 權威를 創造함을 뜻하기도 한다. 넓게 말하여, 이러한 目的을 爲하여 共產主義엘리트에게 使用 가능한 手段들이란 強壓, 組織, 說得, 그리고 褒賞 (reward)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褒賞은 國家經濟의 效果的

---

註 16) Alfred G. Meyer, op., cit., p. 91.

인 運營을 包含하여 그것은 人民大衆을 爲해서는 物質的 利益을, 國家에게는 物質的 誘因을 操作可能케 해 줄 것이다. 또한 이는 住民에 對한 여러가지 善心攻勢도 뜻하는 바, 多樣性에의 寬容, 決定形成( decisionmaking )過程에의 參與機會, 한정된 範圍내에 있어서의 自由放任主義( laissez faire ) 政策 등을 例로 들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強壓이란 警察國家的 手法의 意味와 關聯된 것으로 刑罰的 諸裝置의 広凡한 使用 내지 使用威脅을 말한다. 組織이란 一般的으로 黨과 大衆과의 關係에 있어서 家父長的( paterhalistic ) 術數的( manipulative ) 類型을 상징함을 뜻하며 全 社會에 걸친 일종의 官僚組織을 通하여 모든 社會的 活動을 中央集權的으로 統制함을 뜻하기도 한다. 說得은 「教理의 體質化( indoctrination )」 또는 「成人再社會化( resocialization )」를 爲한 活氣차고 野望에 넘치는 計劃을 爲한 手段으로 導入되는 것이다. 이러한 過程속의 訓練은 共產主義이데올로기 自體에의 訓練에도 자연히 引導하는 效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18)</sup>

權威를 形成키 위한 네 가지의 手段, 즉, 強壓, 組織, 說得, 褒賞 등은 뚜렷이 區分하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 共產主義 政策은 이들 넷중 둘 또는 그以上の 範疇가 混用된 것으로 區分

---

註 17) Ibid.

註 18) Ibid., pp. 91 ~ 92.

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權威의 原始的蓄積期에 있어서는 이들 네 手段이 모두 混用됨으로, 말하자면 共產主義體制는 넓은 實驗을 하고 있는 셈이며, 또 實際로도 그러하다. 이와같은 實驗을 다음과 같은 態度, 思考, 및 딜렘머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즉, 原則적으로 共產主義敎理란 그 信奉者가 權力이나 暴力의 行爲에 있어서 內面的이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며, 同時に 이러한 敎理는 權威란 그것이 情熱, 카리스마 및 信念 等に 根據를 둘 때 가장 確實히 나타낸다고 가르친다. 더구나 레닌은 「만약 權威가 그러한 순수한 支持를 잃으면 共產主義政權은 誘因이나 褒賞에 가급적 기초를 많이 둔 權威를 操作할 必要가 있다」고 力說하고 있다.

恐怖는 共產主義에 對한 가장 危險한 敵을 統制할 수 있는지는 모르나 넓은 階層의 無關心者나 완만한 同調者는 注意깊게 조작된 포상제도에 依해서 가장 잘 動員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sup>19)</sup> 실제에 있어서는 共產主義政權들은 그들의 權威造成에 있어서 褒賞보다는 組織이나 強壓에 더 많이 依存하고 있다. 理由는 共產黨 大部分이 經濟的으로 落後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0)</sup>

共產主義者들은 初期의 突破期에 있어서는 보다 溫和한 方法을

---

註 19) Ibid., p. 92.

註 20) 이 點에서 北韓은 아마도 그 程度가 다른 어느 共產國家에 比하여 클것으로 豫見된다.

使用할 수 없기 때문에 權威蓄積에는 強壓的인 手段이 불가피적이라는 假定(assumption) 위에 體制를 끌고 나가게 되는 것 같다. 「權威의 原始的 蓄積」이라는 用語 自體가 突破口(breakthrough)를 찾고 權威造成을 못한 短期速成計劃을 마련코자 하는 하나의 決斷을 暗示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原始的 權威蓄積에의 要求는 共產主義政權들이 當面하는 보다 더 큰 作業의 일환으로 파악될 때만 더욱 긴급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作業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體制建設(systembuilding)을 意味한다. 體制建設이 점점 더 시급하고 어려운 課業으로 登場하게 되는 理由는, 共產主義엘리트들은 革命의 激動期에 있어서는 맑스主義의 이데올로기의 눈으로 共產主義의 가장 樂觀的인 面만 보게 되므로, 體制構成 따위는 별도로 進行시켜야 할 課業으로 보지 않았던 데서 더욱 그러하다고 보겠다. 즉, 그들은 새로운 體制가 革命으로부터 自生되리라고 성급하게 假定해 버리고 共產主義體制는 낡은 體制가 근하면 저절로 나오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一般的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그러한 期待가 강하면 강할수록 事實 革命이라 했댔자 破壞만을 가져왔고 새로운 政治體制를 制限된 物資의 範圍內에서 구축하는 데는 統合的이고 創造的인 努力이 必要하다는 事實을 더욱 切感하게 되었다. 사실 物資 그 自體가 새로운 體制에 맞추어지기 爲해서는 再編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게 된 것이다. 철저히 새로운 制度·構造·過程 및 類型

等等이 創造되려면 기왕의 政治體制로부터 移越된 社會總體的 源資材에 철저한 變化를 일으켜야만 했었던 것이다.<sup>21)</sup>

이렇게 본 共產主義體制形成期の 權威構造를 合理化시키고저 하는 共產主義의 理論構成의 特性이 北韓共產主義의 體制形成期에 如何히 適用될 것이냐는 엄격한 뜻에서 하나의 「經驗的인 質問 (empirical question)」일 것이다. 理論의 相当部分의 北韓의 政治實情을 通하여 檢證되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部分도 우리는 豫見할 수 있다.

#### 다. 體制維持와 民主的 中央統制

産業化와 體制形成을 爲하여 스탈린主義的 努力을 하는 가운데 相当數의 共產政權들이 經濟生活能力이다. 社會構造 및 生産水準의 面으로 보아 資本主義體制가 産業化 直前に 經驗하였던 社會의 水準까지 도달되는 경지를 經驗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政治的으로는 그들 特有의 性格을 그대로 持續하게 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상당수의 共產體制가 主要한 轉換을 經驗하게 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變革이 共產國家의 權威構造에 갖는 意味를 캐보는 것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主題이다.

한마디로 「共產體制에 關한 限 體制構築에의 成功은 體制自體의 權威를 強化시키는 것은 事實이나, 이것은 同時에 그것을 威

---

註21) Alfred Meyer, op.cit., p. 93.

務하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는 假說로 要約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2)</sup>

權威를 強化하는 面은 여러가지 要因으로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例를 들어 政權의 長壽가 그것인데, 確實히 共產政權의 長期執權은 政權에 對한 追從을 하나의 楨觀으로 轉換시켜 버리는 效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어느 體制고 간에 그것이 數十年을 지탱하고 보면 그 속의 人民들에 依하여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으로 보면 지금 世界의 權威中 尙當수가 體制의 長壽에 힘입고 있는 것도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뜻으로 規定된 習慣은 共產體制가 餘他の 代替可能性 있는 體制的 要素를 成功的으로 除去하면 할수록 더욱 深化되게 마련인 것 같다. 즉, 人民大衆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었던 어떤 代替可能體制에 對한 希望이 사라진 後에는 共產體制의 權威가 상당히 高조되는 事例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sup>23)</sup>

共產體制의 長壽는 그에의 盲從이 비단 習慣으로 變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體制의 組織이나 運營이 차라리 하나의 「日常

---

註 22) Ibid., p.100.

註 23) 東獨이 베르린 封鎖事件以後에 尙當한 權威를 쌓을 수 있었고 美國이 1956年에 있었던 匈牙利 및 폴란드 반란에 效果的으로 支援치 못했던 것도 이와 비슷한 意味와 效果를 갖는 例라 할 수 있다.

生活化( routinized )」하는 데까지 이르는 느낌이다. 바꿔 말하면 體制自體가 「内面化( internalized )」되는 느낌이다. 共產主義者들이 흔히 「民主的 中央集權主義( Democratic Centralism )」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런 「主義」의 内面化가 共產黨으로 하여금 보다 광범한 人民大衆을 體制에 參加시키도록 動員할 수 있는 根據를 提供하고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共產政權의 教養注入( indoctrination )에의 줄기찬 努力은 人民大衆의 底辺層이 共產政治의 組織上 特殊性을 内面化하는데 寄與할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이데올로기의 基本教養을 内面化하며 特히 集産勞動倫理에 탁연하나마 어떤 使命感마저 갖게 하는 役割을 하는 것이 分명한 것 같다.

共產主義權威를 強化해 준 또 다른 要因들은 그들이 이룬 經濟·社會·政治面의 收益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들 體制속의 많은 人民들에게 「共產政權이 約束을 지켜줄지도 모른다」는 期待를 갖게 해 주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共產國家의 市民權도 제법 成功的인 組織속의 멤버십( membership )을 뜻하며 심지어 어느 程度의 自負心마저도 가져다 줄 수 있는 社會인 것으로 믿게 한 것 같다. 共產主義理論이 먹혀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이러한 成功과 有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共產體제도 때로는 生活水準向上을 과시하고 大衆테러( terror )를 特免해 주며 또 國際的 問題에서 威信을 얻게 해 주는 能力이 있다는 믿음이 좀더 이데올로기를 그럴싸한 것으로



보이게 하며 體制의 約束도 믿을만한 것으로 誤認케 하며 特히 党的 理念指導者로 하여금 現世의 世界를 보다 더 實利的으로 記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教養注入이 하나의 狂的인 再社會化에서부터 日常化過程을 거쳐서 이데올로기注入過程에서 確立된 忠誠과 信條로 둔갑해 버리는 셈인 것이다. 이런 點을 政治엘리트와 大衆 또는 政權과 大衆과의 關係라는 點에서 보면 相互受用은 勿論이고 서로가 서로의存在를 當然한 것으로 여기는 狀態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共產政權의 正統性的 增進을 意味할 뿐만 아니라 大衆動員手法上的 變化도 示唆하는 것이다.

共產政權의 大衆動員手法을 類型化하려면 첫째, 어떠한 權威스타일로 大衆動員에 臨하느냐는 것과 둘째, 共產體制가 大衆動員에서 찾고저하는 動機(motive)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重要한 것 같다. 權威스타일에는 「權威主義的(authoritarian)」이나 또는 「參與主義的(participative)」이냐를 보는 것이요, 大衆動員에서 찾고저하는 動機는 「精神的(moral)」인 것이냐 或은 「物質的(material)」인 것이냐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서로 對照的인 變數를 兩軸으로 하여 分析模型을 짜보면 共產體制의 大衆動員上的 權威스타일과 體制動機와의 相關關係가 導出되는데<sup>24)</sup> 이것은 同時에 共產國家의 體制的 特性和 權威構造의 相關關係를

---

註 24) Alfred G. Meyer, op. cit., p. 102.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共產主義理論變動의 過程을 說明해 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圖表

權威스타일 體制動機 動員類型	權威主義的 (authoritarian)	參與主義的 (participative)
精 神 的 (moral)	(I) 革 命 的 (revolutionary)	(IV) 理 想 型 (utopian)
物 質 的 (material)	(II) 體 制 形 成 (systembuilding)	(III) 體 制 維 持 (system-management)

圖表에서 보면 :

(I) 型의 動員樣態는 革命期 및 大躍進運動時期的 動員類型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917 ~ 20年과 1928 ~ 31年 사이의  
 소련과 1958 ~ 60年의 中共을 그러한 類의 動員政權으로 規定할  
 수 있겠으며,

(II) 型은 스탈린主義 盛熟期, 따라서 1938 ~ 53年의 소련과  
 1948 ~ 53年의 東歐를 들 수 있을 것이며,

(III) 型의 動員體制는 스탈린主義的 政權이 産業化에 相當한 成功을  
 거두어 政治體制的 安定性을 이를 必要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  
 으로, 후르시초프 및 브레즈네프 時代의 動員類型과 東歐의 修正主

義下의 그것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으며,

(IV) 型은 勿論 共產主義體制가 천명하는 窮極的인 目標段階 ( goal stage )로서 아직은 어느 共產國家도 여기에 와있는 예를 찾기는 힘들 것 같고, 또 果然 그럴것이나도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勿論 現實 ( realities )은 이와 같은 배구명에다 맞추어 動員樣態를 선명히 分離하기에는 훨씬 複雜한 것이 事實이나 觀察을 意味있게 하기 爲해서는 이러한 模型을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며 어느 意味에서는 不可避的이라고 할 것이다.<sup>25)</sup> 또한 北韓 共產主義體制를 여기에 비취 봐서 그들의 動員樣態가 어떠한 길을 걸어 왔으며 그때마다 그들은 어떠한 理論으로 자기네의 動員型態를 合理化 내지 正當化하려고 試圖한 것인지를 비록 印象主義的이거나 直能主義的인 方法論上的 限界點이 있다 하더라도 觀察해 보는 것은 大端히 興味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

註 25) Michael Haas, 科學哲學講義 노트 ( 하와이大, 1972 ).

### Ⅲ . 北韓共產主義의 理論的 特性

#### 1. 北韓의 體制的 特性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北韓共產主義의 構造的 特性도 黨과 國家와의 엄연한 區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黨을 迫車로 하고 國家는 그에 의하여 올바른 方向으로 움직여 나가게 되는 셈이다. 즉, 國家의 모든 組織은 黨에 의하여 掌握되며 社會의 모든 領域이 적어도 理論的으로는 黨에 의하여 浸透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黨은 反對勢力을 누르는 道具이며, 不然이면 政治的으로 無關心할지도 모르는 人民大衆의 諸 階層을 動員하는 하나의 責(agent)으로 역할한다고 볼 수 있겠다.

1946年 8月 29日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에서 한 金日成의 報告를 보면 要旨는 다음과 같다.<sup>26)</sup> "친애하는 대표동지들!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동하여 북조선로동당을 창립하는 이 대회는 조선독립운동의 력사에서와 오늘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여러 대표동지들은 비단 로동당의 대표로서 뿐만아니라 북조선 전체 인민의 대표로서 한자리에 모여 국사를 토론하며 조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투쟁과 건설을 하여온

---

註 26) 김일성 저작선집(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69.

우리들은 앞으로 더욱 위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선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창건하는 이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고도 첨예한 정국에 처하여 있는 조선인민은 오늘 최대의 관심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당 창립대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크나큰 기대에 보답하며 인민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대회를 성과있게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金日成은 労働黨의 目的과 性格에도 言及하고 있는데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sup>27)</sup>

“우리 로동당의 강령에는 그 목적과 성격과 임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은 강령 첫대목에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조선근로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당이며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당입니다. 로동당은 조선근로대중의 선봉대이며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를 박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로동당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응당 주도적힘으로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서 핵심적역할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 현재 단계 있어서 우리 당의 기본임무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개혁을 전국적으로 철저히 수행하며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립하는것입니다.”

이와같이 北韓共產主義體制에 있어서는 그 出發부터 黨을 政治·

---

註 27) Ibid., p.77.

社会 等 모든 領域의 骨幹으로 내 세우고 있는 것이다. 「혁명 과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 「더욱 위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선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창건」, 「로동당은 조선근로대중의 선봉대」, 「투쟁에서 응당 주도적힘」, 「핵심적역할을 담당」, 等等의 党機能에 对한 力点的 묘사가 이를 雄辨으로 証明해 주고 있다.

그리고 北韓共產主義의 國家에 对한 理論體系는 1948年 9月 10日 金日成이 發表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제 1차회의에서의 정강」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要約 하면 다음과 같다.<sup>28)</sup>

“……남북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통일적조선중앙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며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첫째, 공화국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을 정부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동원할 것이며,……

둘째,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 일제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숙청하기 위하여 온갖 필요한 대책들을 취할 것이며,……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만

---

註 28) Ibid., pp. 255-259.

들어 놓은 법률과 피뢰정부의 온갖 반민주주의적, 반인민적 법령들을 무효로 선포할 것입니다. .... ”

그리고 넷째, 자주적 민족경제 건설, 다섯째, 교육·문화·보건 사업, 여섯째, 각급 인민정권기관의 공고 발전, 일곱째, 대외정책 및 여덟째, 국가보위를 위한 인민군대의 강화 等等을 施政의 課業으로 내걸고 있다. 즉, 이것을 換言하면 黨이 國家目標를 設定하는 中樞機關의 役割을 한다면, 國家 내지 政府는 그것들을 政策的으로 課業化하여 實踐하는 機能을 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北韓共產主義體制라 하더라도 共產主義體制의 一般的特性으로서의 黨 優位の 原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되는 것이다.

## 2. 權威의 變化過程과 理論의 修正過程

### 가. 革命期와 맑스·레닌主義

北韓共產主義者들의 理論構成의 特性도 共產主義 理論構成의 一般的인 段階를 엇비슷하게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첫 段階가 1945年 8.15解放으로 蘇聯軍의 三八線以北의 進駐初期에서 1955年 末頃 까지의 共產主義 革命期에 나타난 權威構造와 맑스·레닌主義의 注入的 敎養化에서 볼 수 있다. 즉, 이 初期에 北韓共產主義者들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追求된 權威構造는 一般的으로 共產主義革命의 初期에 必要한 것으로 알려진 카리스마의 造作이고 革命의 理論的 뒷받침으로는 맑스·레닌主義의 強調였다고 볼 수 있다.

金日成에 對한 蘇聯軍 當局의 카리스마 造作作業은 1945年  
10月 14日 평양 모란봉기슭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른바  
「김일성 동지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 민중대회」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革命初期의 그에 對한 카리스마  
化 攻勢는 과연 대단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의 카  
리스마化 作業의 代表的인 자료만 보아도 다음과 같이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sup>29)</sup>

“오랜 세월 나라의 안팎으로부터 모진고난을 겪어온 우리 민족  
은 비운에 처한 조국과 인민을 전져줄 탁월한 령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나라가 일본제국주의식 민지로 굴러떨어지고  
인민의 운명이 칠성판에 놓였던 시기에 그것은 가장 절박한 민족  
적인 갈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해와 달도 어둠던 민족수난의 시기에 이러한 온 민족의 갈망을  
안고 나서신 분이 바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  
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四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십  
니다.

만경대의 가난한 초가에서 태어나신 그이께서는 일찌기 열네살때  
에 나라와 인민을 위해 한몸을 바칠것을 결심하시고 투쟁의 길에  
나서신후 위대한 항일무장투쟁의 기치를 추켜드시고 조종의 산

---

註 29)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2) (평양 : 인문과학당, 1969), p. 1.



백두령봉에 조국광복의 횃불을 높이올려 삼천리강토에 해방의 서광을 비추시며 인민들을 영웅적인 구국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시었습니다.

실로 로인들로부터 어린이들에 이르는 우리의 모든 세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암담한 나날에도 힘을 얻으며 희망을 키웠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원수놈들과의 싸움에 일떠섰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1930년대부터 김일성 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령도자에 대한 역사적인 갈망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

카리스마 造作에의 美辭 (rhetoric)가 이 지경에 이르면 그것은 카리스마 形成이라기 보다 차라리 個人偶像化 (personality cult)의 強要에 가깝다고 分析할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共產體制에 關한한 이와같은 金日成神話는 마치 檀君神話처럼 카리스마 造作의 道具로 強調되어 있는 것이다. 勿論 金日成이 抗日鬪爭時期의 民族的 英雄으로 崇仰되어 온 伝說的 人物인 그 金日成將軍이 아님은 史料가 證明하는 바이다.<sup>30)</sup>

여하튼 이와같이 날조된 權威로 北韓社會에 君臨하게 된 金日成은 革命初期에 그의 思想體系로는 이른바 맑스·레닌主義를 標榜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맑스·레닌主義를 第一 먼저 公式적으로 表明한 것은 1946年 9月 9日 「평안남도당열성자대회에서 한

---

註 30) 金日成研究論叢 (国土統一院 : 국통조 76-12-134), pp.3-108.

연설]에서 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스탈린의 말들을 많이 인용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sup>31)</sup>)

그의 맑스·레닌主義에 대한 引用을 이 기간동안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위에서 지적한 1946年 9月 9日의 연설에서 보면<sup>32)</sup>: “물론 맑스-레닌주의자들이 오늘 민주혁명과업을 실천하는데서 가장 선봉적이고 적극적인것만은 사실이며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이러한 혁명가들이 우리 당의 핵심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에 통달한 사람만이 민주주의혁명의 수행에 참가할 수 있고 로동당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비록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민주조국건설에서 높은 애국적열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며 선봉적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로동당에 들어올수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로동당이 되었으니 맑스-레닌주의가 당의 지도리론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공산주의자는 맑스-레닌주의원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우경적 견해입니다. 조선의 민주주의혁명은 결코 맑스-레닌주의가 가리키는 사회발전법칙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

註 31) 김일성 저작선집(1), op.cit., pp.1-82.

註 32) Ibid., pp.87-88.

“맑스-레닌주의는 사회발전의 매 단계,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 있어서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이론이며 따라서 그것은 오늘 조선에서의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실행하는데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지침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노동당으로 되었다 하여 맑스-레닌주의가 우리당의 지도이론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거나 공산주의자가 노동당원이 되었다 하여 맑스-레닌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문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더욱 충실하고 그 사상과 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자기의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현력사적단계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것입니다.”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전자는 좌경적경향이며 후자는 우경적경향입니다. 우리는 이 두 경향을 다 배격하고 당과 맑스-레닌주의가 요구하는 정당한 조선을 따라 나아가야 하겠읍니다.”

이와같이 革命의 初期段階에서 金日成은 그 思想的 中核體系로서나 理論的粉飾로서 맑스-레닌主義를 標榜한 것은 事實이다. 다만 여기서 注意할 點은 그의 反復的인 맑스-레닌主義의 高唱에도 不拘하고 맑스-레닌主義의 內容에 對한 說明이나 講論은 直接的으로 簡 公式 聲明에 없다는 點이다. 이와같은 點은 金의 맑스-레닌主義의 表見的인 力說에도 不拘하고 어찌면 그 思想이나 理論體系 自體가 그에게는 벌어온 것이요 異質的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示唆點을 強하게 던져주고 있는것 같다.

그의 맑스-레닌主義에 對한 알맹이가 어찌면 空虚한 부르짖음에 不過하다는 의심은 그 후의 그의 여러가지 公式聲明에도 繼續 나타나는데 몇가지 事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47年 8月 28日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로동당」에서 한 그의 연설에서 보면 그는 또 다시 맑스-레닌主義에 對하여 言及하고 있는데 :

“……우리 당은 선진적인 맑스-레닌주의혁명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일찌기 레닌은 <<혁명적리론이 없이는 혁명적운동도 있을수 없다.>> (레닌전집, 조문판, 5권 2분책, 112페이지) 4…… 선진적리론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만이 선진투사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같은책, 114페이지) 라고 말하였다. …… 우리는 맑스-레닌혁명리론과 조선공산당과 조선인민의 풍부한 경험, 세계 각국 혁명운동의 경험들을 연구하며 우리나라의 력사와 현실을 연구하는 그러한 교양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sup>33)</sup>

즉, 여기에서도 金은 맑스-레닌主義를 理論적으로 說明하거나 敎養化하는 것이 아니라 當爲的 命題로 받아들일 것을 力說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그는 레닌을 引用하고 조선의 경험을 칭송함으로써 맑스-레닌主義가 들씌워진(imposed) 느낌이 強하다 하겠다.

---

註 33) 김일성 저작선집(1), p.142.

1948年 3月 28日 行한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金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34)</sup>

“당선전사업과 맑스-레닌주의적교양사업은 우리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며 하나의 사상의지로 결속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 당선전사업과 맑스-레닌주의적사상교양사업이 잘되는 경우에는 틀림 없이 당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조국건설위업이 승리적으로 추진 될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합당이후 당학습교재와 선전자료 및 수많은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출판하였으며……. 그러나 각 도당위원회 강사들은 정치시사강연과 맑스-레닌주의론 강연을 충분한 준비밑에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말로만 떠들고 실지에 있어서는 이 사업에 힘을 집중하지 않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며 우리 당 사상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인민대중속에 우리 당의 립장과 정책을 선전하며 간부들과 전체 당원들을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해야 하겠읍니다. ……당 선전 및 사상 사업을 소홀시하거나 맑스-레닌주의리론학습을 게을리하는 경향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당적비판을 가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반동분자들의 온갖 발광적음모를 분쇄하고 치열한 계급투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

---

註 34) Ibid., pp. 238-241.

기 위하여 남 조선 및 사상교양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전당을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키고, 인민대중의 계급의식과 자각적열성을 고도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즉, 여기서도 北韓共產主義者들 特히 金日成은 맑스-레닌主義의 効用性을 누차 強調하고 있으며 그것의 內實이나 그 理論이 어떻게 (now) 黨과 人民의 연계성을 強化해 주며 北韓住民의 革命意識을 고취시켜 주는가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特히 北韓共產主義의 未來를 떠 맡게될 青年들에 對한 思想敎養事業에 있어서도 金은 단순히 "……청년들을 선진적인 사상과 이론 즉 맑스-레닌주의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인류사회의 발전법칙을 인식하게 하며 세계인민들의 고귀한 투쟁 경험들과 세계문화의 보물고에서 가장 우수한 것들을 연구하고 섭취하게 하며 우리 나라의 과거와 현재,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를 연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sup>35)</sup> 라고 力說하면서도 맑스-레닌主義의 北韓社會의 實踐的 適用性 및 理論的 妥當性을 立証해 주기보다 맹목적 믿음이나 이에의 條件 없는 熱性만을 강요한 感이 짙다고 할 것이다.

맑스-레닌主義에 對한 以上과 같은 音色 (tone)은 向後의 全 革命期에도 繼續되는데, <sup>36)</sup> 이런 點은 北韓共產主義의 理論的 特性의 一部를 形成한 것으로서 그것은 體系化된 理論으로 그 主義가

註 35) Ibid., pp. 264-265.

註 36) Ibid., pp. 392-393.

受用되었다고 보기보다 차라리 共產政權의 大衆動員手法上的 하나의 手段으로 利用되었다고 보아 過言이 아닌 성 싶다. 왜냐하면 앞서 共產主義의 一般的 特性에서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初期段階에 있어서의 大衆動員을 爲한 權威스타일은 權威主義的인 것으로 그것은 北韓의 共產化 革命期の 金日成에 對한 카리스마의 造作化에 부응하는 政治的 이데올로기(ideology)로서 體制動機를 맑스-레닌主義라는, 뜻은 잘 모르되 大衆을 一時的으로 興奮시키기에 充分한, 精神的 觸媒製를 使用할 必要性이 絶對하였다고 推論할 수 있기 때문이다. 要컨데 北韓共產體制的 革命期에 들썩워진 外來·異質的 思想으로서의 맑스-레닌主義는 그것이 北韓社會에 自然的으로 잘 受用되었다기 보다는 強要되고 알맹이 없이 機械的으로 復唱注入된 느낌이 더욱 眞實에 가까운 듯 하다.<sup>37)</sup> 그 만큼 그 思想과 理論體系는 未來에 있어서 變質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만 셈이 되는 것이다.

#### 나. 體制形成 再編과 主體思想

1950年 6月 25日에 발발하여 1953年 7月 29日 休戰協定調印으로 一段 小康狀態로 접어든 滿3년이 넘는 韓國動亂은

---

註 37) 이점은 김일성 자신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5차전원회의」에서 한 그의 1952년 12월 15일의 연설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다. Ibid., p. 390.

南·北 雙方에 막대한 人命被害와 財産의 損失을 가져다 준것이 確實하다. 그 중에서도 北韓 共產主義體制의 打撃이 더욱 심했던 것이 明白한 것으로서, 이는 "戰爭을 勝利로 이끌었다"고 떠벌이는 金日成·自身도 是認하고 있다. 즉, 그가 1953年 8月 5日 이른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한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라는 題下의 報告에서 보면 "전쟁의 고통과 재난을 겪으면서 막대한 희생의 대가"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인민경제는 여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等等으로 그 참상을 証言하고,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계획」 등을 내걸고 있다.<sup>38)</sup>

이와같은 全國土的 物量的 損失과 全社会的 人命被害를 겪고 나면 사람들은 一般的으로 思考方式이나 價值觀 自體의 責任을 겪게 되는 것이 社会心理学上的 通說이라고 한다.<sup>39)</sup> 이런 點은 北韓 共產主義社会라고 하여 例外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北韓은 戰爭遂行 過程에서 그 支援獲得과 中·소 理念紛爭 始作으로 말미암아 蘇聯과 中共의 눈치를 보아야만하는 処地에 놓여 소위 줄다리기式 外交路線을 捫할 수 밖에 없게된 것은 事實로 알려져 있다. 雪上加霜格으로 敗戰의 責任問題를 놓고 北韓 共產主義政權

註 38) 김일성 저작선집 (1), pp. 397-401.

註 39) Hahn-Been Lee, Korea: Time, Change, and Administra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 East-West Center Press, 19), pp. 55-56.



内部의 權力鬭爭이 深刻했던 것도 이제는 익히 잘 알려진 歷史的 事實인 것이다.

앞서 共產主義體制나 그 權威構造에 관한 一般理論에서도 본바와 같이, 革命期의 權威構造로서의 카리스마란 極히 一時的인 境遇를 除外하고서는 權威를 배태하지 않는 法이며, 카리스마가 배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權力일 뿐이다. 權力이 權威와 相異한 點은 後者正確性에 근거를 두는 關係라면 前者는 強壓과 공포에 基礎하고 있는 關係라고 밝혔다. 그런데 問題는 적어도 하나의 政治體制를 長期的으로 誘致해 나가자면 權威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共產主義者라 하더라도 자기자신의 位置를 定하기가 무섭게 카리스마에 근거한. 그 어떤 流動的인 權威를 잃고 새로운 權威를 確立 또는 再確立할 必要性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 段階의 共產主義 指導者들은 權威確立의 必要性을 가장 절박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革命的 카리스마는 모두 사라지고 共產主義 엘리트와 그들을 따르는 以前의 大衆이 共히 相互에 절뎠던 情熱이 환상과 의심, 그리고 증오로 변해 버릴지도 모르는 一種의 後遺症에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戰爭을 치우고 난 金日成體制와 權威에는 심각한 타격이 不可避的이었으리라는 것은 험사리 診斷이 된다.

즉, 그에게는 이른바 革命時期에 造作된 카리스마는 勿論 깨어져 나가고 戰爭의 폐허로 연유된 人民大衆價值觀의 變質을 再社會化함은 勿論, 当面 國際情勢를 打開하기 爲한 戰略戰術도 再編해야

했던 것은 当然하다 할 것이다. 要컨데 體制의 建設 및 再編과 이에 뒷받침되는 「權威의 原始的 蓄積」이 가장 시급한 問題로 登場하게 된 셈이다.<sup>40)</sup>

權威의·原始的 蓄積 現象은 金日成에 관한 限 이른바 「主體思想」으로 나타 났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는 이것을 主武器로 国内的으로 南勞黨·延安派·蘇聯派를 「事大主義·教條主義的宗派分子」로 몰아 敗戰의 責任을 들 씌우는 한편, 對外的으로는 그것을 名分으로 하여 當時 흐르시초프의 스탈린格下運動에서 야기된 中·蘇紛爭이라는 共產主義圈內的 새로운 國際情勢에서 中·蘇兩國에 對한 一種의 流動的 中立路線을 取하게 된다. 따라서 「主體아이디어」는 一見 国内的으로는 原始的 權威蓄積의 役割을 對外的으로는 北韓體制形成 및 再編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겠다.

「主體아이디어」 내지 「主體思想」의 出帆과 內容은 대략 다음과 같다. 즉, 金日成은 1955年 12月 28日 「당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題下에:<sup>41)</sup>

“…… 모든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체」가 없는것이 사상사업의 가장 주요한 결함입니다. 「주체」가 없다고 하면

---

註 40) 여기서 體制建設 및 再編이라 함은 戰前의 革命期는 異質的 思想을 造作된 權威인 카리스마로 밀고 나가고저한 것은 엄격한 意味에서 體制形成 以前 段階인 一種의 anomie 現狀으로 보는 데서 기인 된다.

註 41) 김일성저작선집(1), pp.561-571.

어폐가 있겠지만 사실은 「주체」가 똑똑히 서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상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 우리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소련공산당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중국혁명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연구하는것은 다 우리 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

“ 우리 당 사상사업에 「주체」가 없다 하여 우리가 혁명을 하지않았다거나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혁명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사상사업에서 「주체」가 똑똑히 서있지 않기 때문에 교조주의자와 형식주의의 과오를 범하게 되며 우리 혁명사업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 ”

“…… 우리의 정권형태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조건에 알맞게 만들어야 할것만 사실입니다. 우리 인민정권의 형태가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의 정권형태와 꼭 같으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맑스-레닌주의원리에서 출발한 점은 같지만 그 형태는 서로 다릅니다. 정강도 물론 우리 나라 현실에 알맞는 정강입니다. 우리의 20개조정강은 조국광복회의 강령을 발전시킨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일꾼들은 이러한것들을 똑똑히 모르기 때문에 왕왕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 많은 동무들이 맑스-레닌주의를 소화하여 자기의것으로 만드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째로 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혁명적 창조력이 나올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될 때에 비로소 그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는것입니다. 형제당들의 경험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당들의 경험을 연구하여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 현실에 옹기 적용하여야 그 경험이 가치가 있는것이지, 그렇지 않고 통째로 받아들여 일을 망쳐버린다면 우리 사업에 해를 줄뿐아니라 형제당들의 고귀한 경험까지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하여 出帆된 이른바 「主體아이디어」는 前期...革命時期...의 北韓共產主義의 理論的 特性이 맑스-레닌主義의 無修正·無條件的 복창과는 사뭇 다른 論理로 바뀌어진 것이 確實하며,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실천」 한다거나 「형제당들의 경험을 우리 현실에 옹기 적용」한다는 등의 宣言은 權威의 原始的 蓄積 없이는 独立的 體制形成이 不可能함을 自覺한 것으로 分析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그러한 「主體아이디어」가 力說되는 스타일面에서 보면 權威의 原始的 蓄積의 道具로 使用되는 強壓的·組織的·說得的인 音色을 엿볼 수 있는 것이 特性이라

하겠 다.

또한 金日成은 主體思想의 內容에 對해서는 1967年 12月 16日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자립·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라는 題下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sup>42)</sup>

“공화국정부의 정강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자주·자립·자위의 혁명조선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이 정강의 실현은 우리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더욱 부강하고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킬것이며 우리 인민의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1972年 4月 3日에서 10日까지에 걸쳐 金日成의 회갑을 記念하기 爲하여 평양에서 열렸던 이른바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서 北韓의 政治要員이자 思想担当秘書인 楊亨燮의 討論에서는 기왕에 주장된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그 나름대로 整理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 要約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主體思想」의 概念은 二大支柱인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으로 構成되며, 前者는 ① “남에대한 의타심을 버리고”, ② “자기머리로 사고하며”, ③ “자기힘을믿고”, ④ “자립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며”, ⑤ “자기문제는 어디까지나 자기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태도”를 意味하

---

註42) 金日成主體思想關係資料集 (국토통일원:국통조 76-11-40), pp.635-636.

고, 後者は ①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② "맑스-레닌주의의 일반 원리와 다른나라의 경험을 자기나라의 역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다. 그에 依하면 「自主的 立場」은 "사대주의를 극복하는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이고, "자기나라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혁명적태도와 관점"이며, 한편 「創造的 立場」은 "혁명과 건설의 일반적 합법칙성과 민족의 특수성을 옳게 결합"시킨 것이니,<sup>43)</sup> 要컨데 맑스-레닌主義原理를 지키면서 그것을北韓의 具體的 條件에 맞게 適用하고 發展시키는 것을 意味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主體아이디어」 내지 「主體思想」은北韓에 關한한 體制形成 및 再編의 名分으로서, 또한 그 體制를 뒷받침하는 權威 構造形成의 道具로서 約 15年 以上을 持續해 온 셈이 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權威스타일은 大端히 權威主義的이고, 또 體制動機는 「전후인민경제복구」를 위한 「천리마방식」이니 「천리마운동」 등으로하여 強한 物質的 性格을 띄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期間동안의 動員類型의 特性으로는 體制形成 및 再編에 머물렀다고 診斷할 수 있을 것이다.

---

註 43) 金甲喆,北韓 「主體思想」에 關한 研究(韓國外國語大學大學院: 政治學博士學位論文, 1976), p. 54.

#### 다. 體制維持와 金日成唯一思想

앞서 共產主義體制의 權威構造에 關한 一般的 考察에서 共產主義體制가 原始的 權威蓄積을 通하여 體制形成에 어느 程度 成功 하고나면 다음으로 그 體制를 維持해 나가야하는 段階에 접어들 것이며 그에 必要한 權威構造는 이른바 民主的 中央統制라고 하였다. 바꿔말하면 共產體制에 關한 限 體制構築에의 成功은 體制自體의 權威를 強化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同時에 그것을 위협하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權威를 強化하는 要因의 代表的인 例는 政權의 長期化로 보았는데, 확실히 共產政權의 長期執權은 政權에 對한 追從을 하나의 習慣으로 轉換시켜 버리는 效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 하였다. 어느 體制고 간에 그것이 數十年을 지탱하고 보면 그 속의 市民들에 依해서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習慣은 共產體制가 여타의 代替可能性있는 體制的 要素를 成功的으로 除去하면 할수록 더욱 深化되게 마련이다. 즉, 市民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었던 어떤 代替可能體制에 對한 希望이 사라지고 난 다음, 共產政權의 權威가 상당히 高調되기 때문이다. 共產體制의 長壽는 그에의 盲從이 비단 습관으로 化解 버리는 것을 意味할 뿐만 아니라 體制의 組織이나 運營이 차라리 하나의 日常生活化하는 데까지 이른다고 보았다.

이와같은 現象은 體制自體가 內面化되는 것으로, 共產主義者들이 흔히 「民主的 中央執權主義」라고 하는 權威構造이다.

이런 「主義」의 內面化가 共産黨으로 하여금 보다 広範한 大衆을 體制로 參加시키도록 動員할 수 있는 根拠를 提供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共産政權의 教養注入에 對한 즐거찬 努力은 人民大衆의 底辺層이 共産統治의 組織上 特殊를 內面化하는데 寄與할 뿐만 아니라 共産主義思想의 基本教養을 內面化 시키는 役割을 한다고도 보았다. 이러한 觀點에서 1980年代의 北韓共産主義者들의 理論的 特性을 觀察해 보자.

金日成은 1970年 11月 2日 「조선로동당 제 5차대회에서 한 사업총화 보고」에서 이른바 3大革命을 力說하고 있다. 3大革命이란 ① 思想革命 ② 技術革命 ③ 文化革命이 그 內容인데, 金은 이들 中에서도 특히 思想革命에 最大의 力點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依하면 思想革命은 곧 「은 社會의 革命化 및 勞動階級化」를 意味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sup>44)</sup>, 이것은 北韓의 客觀的인 社會實情이야 如何든 間에 적어도 金日成 自身の 主觀으로는 北韓도 體制維持期에 접어들었으며 「民主的 中央集權主義」가 權威構造面에서 可能한 것임을 宣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全社會의 革命化 및 勞動階級化를 爲한 理論的 武器로는 前期에 形成된 主體思想을 더욱 広範圍하게 더욱 철저하게 宣傳 浸透시켜 이제는 맑스-레닌主義를 補強하며, 심지어 그것을 능가하는 新紀元的 思想이라 主張하게 된다. 이렇게 그 주창의 強度나 適用範圍가

---

註 44) 金日成主體思想關係資料集, op. cit., p. 716.



深化된 「主體아이디어」 내지 「主體思想」을北韓에서는 「党的  
唯一思想」, 「金日成唯一思想」, 심지어는 「金日成主義」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유일사상체계가 뚜렷히 섰으며 전당이 맑  
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  
여 있습니다. ……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적(的)인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  
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sup>45)</sup>

이러한 내용으로 出發한 唯一思想은 1972年 4月 3日 부터 열  
린 이른바北韓의 社会科学者大会에서 宣傳的으로 體系化되고 소위  
「金日成主義」化된 것 같다. 이 社会科学者大会는 그 會議의 表  
題(title)에서 부터 그러한 意圖가 역역히 나타나 있는데 例를  
들어 그 表題와 細部項目의 論題 그리고 項目別 內容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sup>46)</sup>

表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  
하고 널리 해석 선전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라고  
달고 무엇보다 金日成의 革命思想은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  
주의 그 자체」라고 力說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그들의 論旨는:

“…… 우리 시대앞에 나선 이 모든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에

---

註 45) Ibid., pp.757-759.

註 46) Ibid., pp.787-870, passim.

올바른 해답을 주기 위하여서는 기성리론과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문제를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립각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전지하여야 하였으며 이러한 근본립장을 밝혀주는 새로운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을 창시하여야 하였읍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가 제기한 모든 문제들과 근본요구들에 가장 정확하고 전면적인 해답을 준 사상입니다. "

" << …… 우리 당은 이때까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맑스-레닌주의일반원리를 지침으로 삼아왔으며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내놓았거나 실천에 옮겨놓은것을 적지않게 참작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여 놓은것 가운데서 많은것들은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를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독창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맑스나 레닌의 단계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또 시대적조건으로 말미암아 예견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해결하여 놓았읍니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내어 놓은 명제들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였거나 중등정도로 발전한 나라들의 사회력사조건과 그 당시의 혁명실천의 객관적요구를 반영한 것이였습니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내놓은 명제들과 원리들을 오늘의 혁명실천의 산 지침이 될 수 있게 더욱 발전시키며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서 절박하게 나선 모든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새로운 혁명리론을 창시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적

요구이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혁명의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

“혁명의 위대한 수명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요구와 이러한 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혁명적령도에 관한 이론을 새롭게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사상입니다.”

要컨데 「主體아이디어」로 出衆한 金日成의 北韓共産化를 爲한 도구로서 思想들이 體系化되어 하나의 新紀元을 이루는 独自の인 思想으로 되었다는 主張인 것이다. 그 밖의 이 「金日成唯一思想」이나 「金日成主義」의 定義나 機能을 보면:

첫째, 金日成의 革命思想은 「主體思想」을 진수로 하는 「맑스-레닌주의적思想理論體系」라는 것이고, 둘째 그 理論體系는 「人民의 革命鬪爭에 關한 理論과 戰略戰術」로 機能하며, 셋째 그것은 또한 「社會主義·共産主義建設에 關한 科學的 學說」로 役割하며, 넷째 「革命과 建設에 對한 領導原則과 革命的 群衆路線에 關한 創造的 理論」으로서 北韓社會科學의 基礎일 뿐만 아니라, 이에 依해서 北韓의 三大革命이 成功的으로 達成되어 ① 思想作業에서는 全體人民大衆의 勞動階級化에 ② 技術革命에서는 高度의 生産性에 依한 産業社會를 建設하는데, 그리고 ③ 文化革命에서는 온 社會를 인텔리化하여 階級이 종국적으로 打破되는데 成功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sup>47)</sup>

이상과 같은 主張은 1980年 10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거의 마찬가지로 되풀이 되고있는 것으로 伝한다. 다만 이번의 6次党大会에서는 새로운 權力構造를 形成하고 1980年代의 「社會主義革命과 建設課業」을 提示하는 過程에서 첫째 소위 「首領決定論」에 依한 權力承繼의 準備作業으로서 金日成의 아들 金正日의 地位가 公式化되었다는 것과, 둘째 「金日成主義-主體思想」이 아예 맑스-레닌主義 代身으로 크게 내세웠다는 점이 理論적으로 볼때 特記할만하다 할 것이다.<sup>48)</sup>

이와같이 볼때에 確實히 北韓共產主義體制도 저들의 主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動員類型으로 보아 體制維持期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하는 느낌을 준다. 即, 體制形成 및 再編時期的 原始的 權威蓄積에서 進一步하여 當時의 스탈린主義的 政權의 性格이 三大革命等의 成功主張으로 제법 物量的 體制動機를 높이고 動員的이고 強制的 性格이 다분하나 參與主義的 權威스타일을 強調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客觀的인 分析으로는 이러한 모든 變數들이 北韓共產主義에 關한한 多분히 捏造的이고 宣傳的인 面이

---

註 47) Ibid., pp. 1123-1140.

註 48) 時事情報資料( 国土統一院: 第24輯, 1980年 11月)

強한 것이 事實이라면, 차라리 金日成偶像化, 共產主義体制로는  
類例 없는 世襲制構築等으로 말미암아 이 時期에도 新카리스마  
(neo-charisma)에 依한 新革命期 내지 體制再編期の 印象을  
強하게 풍기는 것이 숨길 수 없는 事實로 보인다.

## Ⅳ . 結 論

우리는 北韓共產主義體制的 態度나 行態를 볼때마다 그들이 異質的인 外来 思想인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에 依한 政體임을 알면서도 變態的이고 特異하다는 느낌을 한결 같이 가져 왔음이 事實이다. 이러한 느낌은 本 研究에서는 比較共產主義的 觀察을 爲한 하나의 問題意識을 불러 이르기기에 充分한 것이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선 共產國家 全般의 體制的 特性和 權威構造를 살펴 보고 그것들로 부터 어떤 共通的인 特性을 먼저 導出하고 그에 投影된 北韓의 모습을 들여다 본 셈이다. 굳이 共產主義理論을 研究함에 있어서 그들의 體制的 特性和 權威構造를 問題삼은 理由는 그들이 바로 理論形成의 內實 및 對象이 된다는 社會科學的 問題認識에서 였다.

이렇게하여 形成된 共產主義論理一般에서 본 北韓의 경우, 이와 엇비슷하게 나가면서도 그들 特有的 理論的 獨斷과 論理的 矛盾이 相當히 크다는 것을 發見하게 되었다. 卽, 革命時期에 있어서 그들의 카리스마造作은 카리스마의 造成이 아닌 金日成에 對한 무리한 카리스마의 「操作」이었음을 알았다. 또한 體制形成期の 金에 對한 原始的 權威蓄積의 過程에서는 이른바 政治에서의 自主經濟에서의 自力 國防에서의 自衛 그리고 무엇보다도 思想에서의 主體性의 確立이라는 뜻의 이른바 「主體아이디어」 내지 「主體思想」을 그 武器로 使用된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 「主體思想」은

그들의 宣傳이 무엇이든 間에 當時 北韓共產主義者들이 直面해야 하였던 內外的인 政治情勢가 實踐的 理由를 強要한 것으로 思想이나 理論 그 自體가 共產主義一般理論의 흐름과 同一한 것이 아닌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體制維持時期라고나할 近者에 들어와서는 그들은 北韓體制自體를 더욱 徹徹적으로 달으면서 이른바 「党的 唯一思想」 및 「金日成의 唯一思想」 내지 심지어는 「金日成主義」라는 獨特한 主義·主張을 내걸면서 마치 이것이 맑스-레닌主義를 補強하고 그것을 능가하며 「새로운 時代의 맑스-레닌的 絶對真理」로 自處하고 宣傳하고 있는 것도 보았다. 아마도 共產體制的 世襲獨裁化를 爲하여서는 이와같이 理論面에서도 突然變異的 論理가 必要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同時에 우리들은 이러한 主義·主張이 어디까지나 「主張과 宣言(doctrine)」이나 「獨斷(dogma)」은 될수 있으되 科學的인 「理論(theory)」이나 普遍的 「思想(ideology)」 및 「主義(-ism)」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도 証明한 셈이 된다.

이러한 뜻에서 確實히 北韓共產主義者들은 그 體制나 權威 그리고 저들의 理論構成의 面에서 突然變異性을 갖고 있음이 診斷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北韓共產集團의 特異性은 그것이 變異的이기 때문에 그 政策形成이나 政策遂行面에 豫測을 不許하는 것도 嚴然한 事實임에 우리는 恆時 깊이 注意할 必要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할 것이다. 突然變異가 「골치거리」인 것은 그것이 어떤 一般法則이나 蓋然性으로 說明하기 어렵고, 이에의 對備가 어렵기 때문이다.

